
문서번호 : 19-공익인권변론센터-04-01

수 신 : 제 언론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발 신 : 문의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02-522-7283)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010-8402-1718)

제 목 :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4. 3.(수)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2.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대리하는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민변 소속 변호사 12명, 이하 ‘대리인단’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위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지난 2019. 1. 25.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두달여에 걸쳐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추가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3.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그 어떤 주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부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리

인단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소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송의 제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송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강제동원 피해자들부터, 2019. 4. 4.를 시작으로 계속 제기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 :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4. 4.(목) 11:0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변 강제소송대리인단 공동간사)
 - 발언
 - ① 경과보고
 - ② 대리인단 발언(이형준 변호사)
 - ③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 김한수(1918년생)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강제노동
 - 김용화(1929년생) :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
 - ④ 민족문제연구소 발언 (조시현 연구위원)
- 구체적인 추가소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끝.

2019.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